

흥, 먹·미디어에 번지다

무등갤러리 전시·공연 융복합전

서예 이돈흥·미디어아트 신도원

한국화 설박·장예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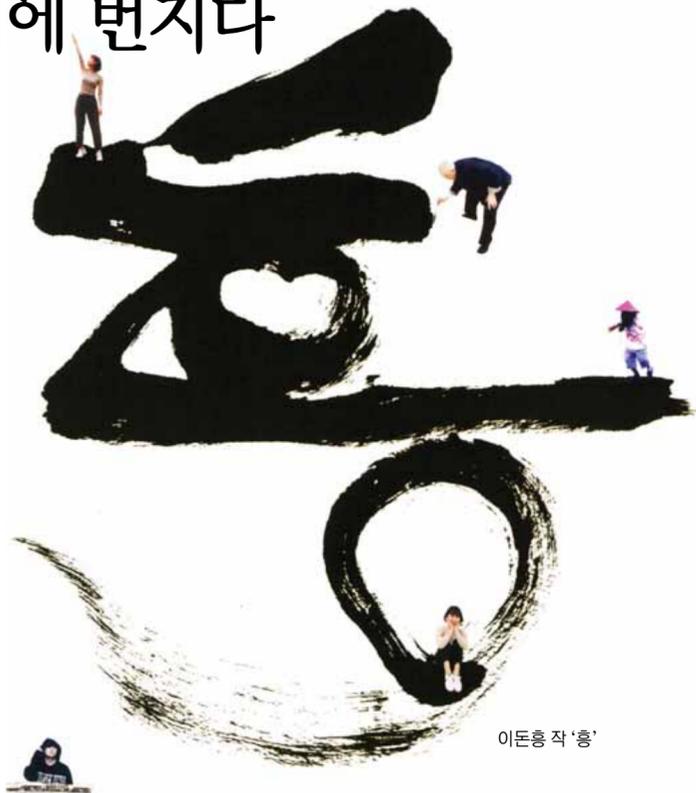
디제이 장준 참여

미디어아트·수묵·디제이 만남

14일 작품 제작 퍼포먼스

26일까지 전시

참여작가들 “새로운 시도 설레”



이돈흥 작 '흥'

전통적 장르인 서예, 한국화와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아트가 만났다. 여기에 신나는 디제이가 어우러져 분위기를 띄운다. 마치 클럽 공연장을 연상시키는 갤러리에서 작가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다. 완성된 작품은 퍼포먼스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과 함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광주시 동구장이 운영하는 무등갤러리(관장 조은경)는 매년 10회 내외의 기획·초대전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결합을 통한 전시를 기획,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는 미디어 아트의 강운, 박상화 작가와 안무가 이숙영이 참여한 ‘숨결’전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패션디자이너 김현희와 사진작가 이설제가 결합해 전시를 진행했다. 대관 위주의 일반 갤러리와 달리 공공 성격이 강한 전시장이 개성 있는 기획전을 진행,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시도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올해는 ‘흥·먹&미디어에 번지다’ 퍼포먼스 전시를 연다. 서예가 이돈흥, 미디어 아티스트 신도원, 한국화가 설박과 장예슬, 디제이 장준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갤러리측은 올 초부터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를 섭외, 행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기획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성’과 ‘자유로움’이다. 14일 오후 6시 열리는 퍼포먼스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작가들도, 관람객들도 기대중이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2일 갤러리에 모인 작가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에 기대와 호기심을 보였다. 설박·장예슬 작가는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구조물에 하얀 천을 씌우고 역동적인 인체 드로잉을 선보인다.

“보통 전시라고 하면 기존에 그려놓은 작품을 걸어놓는데 그치는데 이번 전시는 획기적이라 욕심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장예슬, 신도원, 설박, 장준, 이돈흥 서예가.

났어요. 제 나이 대에서 수묵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수묵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예전에 디자인 작업도 해봤지만 수묵만큼 깊이가 있는 것도 없어요. 이번 기획을 통해 수묵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추상 수묵을 작업을 주로 하며 지난해 광주은행이 주최한 1회 광주화루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장예슬 작가는 “자세한 건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달라”며 웃었다.

장 작가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퍼포먼스를 기획한 설박 작가 역시 “처음 하는 시도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재미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도원 작가는 이날 현장 퍼포먼스를 영상에 담은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최근 청와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초청 행사 등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작품 중 일부도 결합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으면서 퍼포먼스 모습을 담은 예정입니다. 청와대 작품 중 조화, 평화, 화합의 내용이 담긴 부분을 잘 편집해 함께 영상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또 제가 추상적 기법으로 그린 동양화도 집어 넣구요. DJ 장준이 제작한 음악과 믹싱해봤는데 작품과 잘 맞더라고요.” (신도원)

이번 전시 안내 팸플릿에 실린 ‘흥’이라는 글씨를 쓴 이돈흥 서예가는 젊은 작가들과의 색다른 작업에 기대를 내비쳤다.

“중국 등에서도 서예 퍼포먼스를 몇차례 해보기는 했는데 미디어 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이번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행사장 분위기를 보며 즉흥적으로 글씨를 써나가지요.”

이번 기획에서는 무엇보다 서예, 한국화하면 연상되는 국악 대신, 파격적인 디제임을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카토모리(KATOMORI)’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DJ 장준은 도쿄 시부야, 오사카 난바 등에서 열린 디제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뮤지션이다.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조각회 회원전 20일까지 갤러리 북

호남조각회(회장 김시원) 제 25회 회원전이 오는 2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북에서 열린다.

호남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한 이들의 모임인 호남조각회는 지난 1991년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창립전을 시작으로 매년 전시회를 열어왔다.

회원들은 이번 전시에서 브론즈, FRP, 테라코타, 복합재료, 나무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암에서 발굴된 장신구를 활용한 작품, 유쾌한 느낌의 팝아트적 작품, LED 전등을 활용한 전신상 등 흥미로운 전시작이 많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고(故) 최재용 작가를 기억하며 그의 예술혼이 담긴 유작을 함께 전시, 의미를 더한다. 최 작가의 작품으로는 브론즈로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제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김경란·김상옥·김숙빈·우정호·이병선·조성태·조운서·전기정·홍원철씨 등 18명의 회원들이 출품했다. 문의 010-9078-1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고(故) 최재용 작 '인연'

빛고을사진회 회원전 16~22일 우영갤러리



▶최현동 작 '월류동의 가을'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 앵글에 담고 있는 빛고을사진회(회장 선정민)가 오는 16~2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우영갤러리(우영카메라 2층)에서 28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구태운·황현배·조영선·황현배·고광중·박희예·최현동·강남순·조경륜·정병두·이용일·김귀례·안판중·서육경·김희진 씨 등

이 참여한다. 이들은 광주 지역의 일상과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포착한 작품, 생명의 소중함이 물씬 풍기는 자연 생태계를 찍은 사진 등을 선보인다. 구태운 씨는 보성 응지 솔밭의 소나무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연출했고, 안판중 씨는 화순 고인돌을 환상적인 색감으로 담았다. 문의 062-227-322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월례회’ 이이남 작업실 탐방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다섯 번째로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방문한다.

14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와 지역 작가들은 광주시 남구 백운동 이이남 스튜디오를 찾아 작업 세계를 논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고전 명화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디오 아티스트’인 이 작가는 고전 명화를 차용한 그만의 미디어 작품을 선보이며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대



학원 미술학 박사인 이 작가는 벨기에, 뉴욕 등지에서 4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5비엔날레에서 ‘개인의 구축물’ 전시를 가졌다. 또 2015광주 유니버시아드 미술총감독, 2015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막식 미디어아트 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미술상, 대한민국 올해의 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송년·신년모임
지금 예약하세요!

지난 30여년, 광주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모임을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